

## 이로에 암퇘 향로

암퇘을 형상화한 이 도자기 향로는 17세기 유명한 도예가 노노무라 닌세이의 작품입니다. 같은 닌세이의 작품인 이로에 퇘 향로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우와에쓰케(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) 기법과 정교한 조형미를 볼 수 있습니다. 1965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닌세이는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은 성분의 안료를 산화시켜 광택있는 갈색과 회색 깃털을 표현함으로써 실제 암퇘에서 볼 수 있는 색감과 농담을 재현했습니다. 머리부분에도 눈 주변의 육수(일부 조류의 수컷에서 두부 경측에 늘어서 있는 육질의 용기)에 붉은색과 금색이 사용되었고 눈꺼풀에는 살짝 과란색을 더해져 있는데, 이를 통해 닌세이의 색채 표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둘 다 ‘이로에’라고 하는 우와에쓰케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.

퇘의 몸체 조형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. 길고 곧은 꼬리는 위로 45° 각도로 힘있게 뻗어 있고, 뒤를 돌아본 머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치 깃털을 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. 굽는 과정에서 수축하거나 뒤틀릴 수 있는 점토로 이렇게 섬세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.

닌세이의 기품 있고 우아한 도자기는 다도 도구로써 궁중 귀족과 상급 무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. 실제로 닌세이의 퇘 향로와 암퇘 향로를 비롯해 현존하는 작품의 대부분이 다기나 차도구입니다.